〔연구논문〕

EISSN 2234-0793
PISSN 1225-115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39, No. 6 (2015) p.910~923
http://dx.doi.org/10.5850/JKSCT.2015.39.6.910

이방인 뉴요커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패션디자이너와 광고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오 현 정†
광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ssential Meaning of Gentile New Yorkers -Focusing on Fashion Designers and Advertising Designers-

Hyun Jeong Oh†
Dept. of Fashion Design, Gwangju University
Received August 31, 2015; Revised (September 19, 2015; September 23, 2015); Accepted September 25, 2015

Abstract

This phenomenological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essence of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a New Yorker. Participants were 11 Korean single women around 30 years old who work as fashion designers or advertising designers living and working in New York.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2013 to February, 2014, and one-to-one in-depth interviews were performed for data collection. Data analysis used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proposed by Giorgi. Phenomenological research is useful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for select cases and is used as an epoch and free variation method. The study results were identified from 70 common meanings to 14 exposed themes and 4 essentially themes from a gentile New Yorker's experience. The 4 essential themes were as follows. 1) Self-realization at the highest stage, 2) Indulge in the advanced culture of affluence and freedom, 3) Collapsing every day in depressed foreign workers, and 4) Becoming a rootless gentile New Yorker.

Key words: New Yorker, Essence, Meaning, Phenomenological study, Qualitative study; 뉴요커, 본질, 의미, 현상학 연구, 질적 연구

I. 서 론

뉴욕은 미국 뉴욕주의 최대 항구 도시이고, 미국의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수도이다(Doopedia, n.d.a). 또한 뉴욕은 10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함께 백인이 주도하는 고급예술, 상업적인 문화활동이 더해져서 다양함과 화려함이 넘치는 세계의 문화수도로서 일상적이고 다원화된 문화예술활동은 뉴욕시의 이미지 제고와 관광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Yi, 2001). 뉴욕이라고 하면 대도시의 분주함, 피프스 애비누의 패션, 각종 전시문화공연 등 예술적 일상화 등이 연상된다(Han, 2015). 여기에 뉴욕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나 드라마 속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뉴욕과 뉴요커는 패션과 쇼핑,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모든 이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최근 네이버 뉴스에서 뉴요커를 언급하는 뉴스 100개의 헤드라인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패션, 음식, 문화 관련 분야에서 상업용 혹은 홍보용으로 뉴요커의 특징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전문정보나 학술정보 검색에서 뉴요커를 언급한 자료는 그 수도 적지만 사회학, 비교문

†Corresponding author
E-mail: ohhj@gwangju.ac.kr
본 연구는 2015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2015,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학, 고고학, 민속학, 신문방송출판학계의 자료이거나 미술, 디자인 분야가 대부분이고, 의류나 의상, 패션디자인 분야 연구는 초라한 형편이었다. 뉴요커는 패션 분야에서 상징적, 상업적 가치가 뛰어날 뿐 아니라 속칭 핫한 대중문화현상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뉴요커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필요성과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뉴욕은 문화예술 방면 교육과 직업활동에서 최고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역시 최고의 도시이다. 한국대학의 패션전공자들이 부족한 패션지식을 채우거나 직업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적인 해외 인턴십이나 현장실습, 장기적인 해외 유학이나 해외 취업을 꿈꾸는 곳이기도 하다. 연구의 시작은 이런 뉴욕으로 떠나서 부러움을 사며 뉴요커로 살고 있는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어떤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말 영화같은지, 책이나 드라마에서 봤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서 출발했다. 현지에서 연구참여자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학술연구로 접근해 보니 뉴요커의 범주 구분이나 개념 정의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기에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뉴욕에서 일하고 산다는 것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본질은 어떤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사물의 고유한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다(“Essence”, 2009).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이 뉴욕에서 일하고 살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 뉴욕에서 일한다는 것과 산다는 것의 고유한 성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한 질적 연구이다. 뉴요커로서의 삶은 어떤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뉴욕생활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경험이 갖는 본질과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은 질적 연구의 기반 철학 중 하나이고, 현상의 본질을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분류하는 방법이다(“Phenomenology”, 1996). 지오르지(A. Giorgi)가 사람들이 일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의 본질구조를 탐구하는 것이 현상학적 심리학의 과제라고 말한 것처럼(Lee, 2014)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소수사례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참여자들이 뉴욕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의 본질구조나 의미관계를 탐구하기 위해 지오르지의 기술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Jang, 2011; Moon, 2015).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디자이너나 패션머천다이저를 꿈꾸는 개인에게 뉴욕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 뉴욕유학과 취업의 실제적인 혜택, 감당해야하는 현실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뉴욕유학과 취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와 기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나아가 패션 관련 업체나 패션 관련 교육기관 관계자들에게 조직과 기관의 변화, 발전, 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문헌고찰

1. 뉴욕과 뉴요커

뉴욕은 인구의 반이 이민자로 구성된 다문화 사회이고(Kasnitz et al., 2004),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배경에서 나오는 풍부한 경험(Berusch, 2015)으로 역동적이다. 뉴욕의 문화예술행사는 뉴욕 밖 사람들이 뉴욕을 동경하도록 만들고, 뉴욕시민에게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문화향유체계이다(Yi, 2001). 뉴욕을 찾는 사람들은 무언가 배우고 새로운 커리어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젊은 단기 체류자들, 이민자와 그의 가족들, 관광객, 사업가들로 구성된다(Lee, 2012).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The free dictionary, 2015) 이들의 엄청난 돈과 재능, 인력이 한 곳에 모여서 항상 역동적이고 기회가 넘친다는 무한한 감정적 에너지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Gopnik, 2007/2009).

뉴요커(New Yorkers)는 뉴욕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세계 최고의 도시 안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매우 크고, 나와 다른 다양성을 존중하기에 남들 일에 관심 없고, 남의 이목에 신경도 쓰지 않는다(Kim, 2007). 더 생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뉴요커들의 존재방식은 언제나 분주하다(Gopnik, 2007/2009). 뉴요커에 대한 관심은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라는 드라마를 통해 2000년대 초반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미국문화와 패션의 중심지인 뉴욕을 배경으로 자기분야에서 성공한 전문직 미혼여성들의 일상을 보여준(Wikipedia, n.d.)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패션과 소비지향적인 생활, 개인 취향을 우선시하면서 자유분방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뉴요커의 일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었다(“Yuppies”, n.d.). 특히 패션아이콘으로서 주인공 캐리의 감각적인 패션스타일은 뉴욕과 뉴요커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Shin(2009)은 이 드라마의 효과가 극적으로 드러난 분야가 뉴요커 스타일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이었고, 이후 국내 온라인 쇼

핑몰과 동대문 일대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Park(2004)은 뉴욕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견고한 토대와 연속성을 갖고 있는 토박이 뉴요커, 뉴욕으로 출퇴근하며 뉴욕에 끊임없는 흐름을 가져다주는 통근 뉴요커, 그리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 뉴욕에 와서 도시에 열정을 가져다주는 정착 뉴요커로 구분하였다. 물론 진짜 뉴요커로 자격을 얻으려면 적어도 10년 동안은 뉴욕에 살아야한다거나(Atik, 2010), 진짜 뉴요커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뉴욕에서 태어났는지, 노란택시를 탈 수 있는지, 베이글 주문방법을 아는지(Miller, 2014) 등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인 기준으로 주류 뉴요커와 이방인 뉴요커로 구분하였다. 주류 뉴요커는 미국문화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시민으로 미국드라마의 주인공들과 같은 토박이 뉴요커를 중심으로 하고 통근 뉴요커 일부가 포함됐다. 이방인 뉴요커는 아직은 미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지만 예술적 혹은 직업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뉴욕에 정착한 외국인을 중심으로 하고 통근 뉴요커 일부가 포함됐다. 이들은 뉴욕 특유의 긴장감을 만들고, 뉴욕을 예술적 성취를 이룬 도시로 만든 사람들로서 모두 첫사랑과 같은 강렬함으로 뉴욕을 끌어안은 사람들이다(Park, 2004).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고, 디자이너로서의 직업적 성취를 위해 교육받거나 취업해서 뉴욕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아직 미국문화가 낯설다는 점에서 모두 이방인 뉴요커였다.

2.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은 창시자 후설(E. Husserl)에서 시작된 철학운동의 하나이다. 현상학은 의식에 나타난 것 즉 현상을 충실히 포착해서 그 본질을 직관으로 파악하고 기술한다는 공통적인 지향성을 가진다. 후설은 사물의 존재를 소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중지하고, 일상적인 자연적 태도를 괄호 속에 넣은 다음 남아 있는 순수의식의 본질을 기술하기(Doopedia, n.d.b) 위해 본질직관과 현상학적 환원 개념을 제시했다. 본질은 개별 사물이 다른 사물들과 엄격히 구분되는 인식의 근거이며, 현상의 본질을 직관하기 위해 '자유변경' 방법을 사용한다. 이는 자유로운 상상 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작용("Freie Variation", 2011)으로써 자유변경을 통해서도 변하지 않는 공통된 속성 즉 현상의 본질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현상학적 환원은 엄밀하고 보편적인 현상학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괄호치기, 배제, 판단중지(Epoch) 등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다의적인 개념에 가깝다. 이는 순수의식의 본질을 기술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하던 기준 내려놓기, 상식과 선입견에 대한 배제, 자연적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괄호치기 방법이다("Phänomenologische Reduktion [Phenomenological Reductio]", 2006).

지오르지는 후설의 근본정신을 살리면서 현상학적 심리학의 영역을 개척했다. 그는 일상적 경험의 본질적 구조탐색을 현상학 과제로 보고, 자유변경과 판단중지라는 현상학적 연구절차를 사용했다(Lee, 2014).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이 체험한 것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해서 기술하는 방법이다(Creswell, 2013/2015). 심층면담으로 수집된 연구자료로부터 본질구조를 밝혀내기 위해 사용한 지오르지의 연구절차는 네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Lee, 2015; Moon, 2015; Shin et al., 2004). 첫 번째 단계는 연구참여자가 기술하는 상황을 대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자료 전체를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주제 현상에 맞추고 의미전환점을 찾아 의미단위들을 구분한 후 연구참여자의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들을 확보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일상적인 언어를 이론적 차원의 학문적 언어로 바꾸어서 일반적인 의미범주를 파악한다. 이때 '반성과 자유변경'법은 학문적인 용어로 숙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현상학적 방법이다. 네 번째 단계는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의미단위들을 종합하면서 현상의 본질구조를 파악하여 일목요연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경험의 의미를 포함한 현상구조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술된 경험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밝혀내는 귀납적 · 기술적 연구방법이다(Shin et al., 2004). 본 연구는 개별적인 현상체험에서 공통적이며 불변적 요소를 밝히고자 자유변경법과 현상학적 판단중지의 연구절차를 사용했고, 전환된 의미단위에서 구조로 통합하는 지오르지의 기술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따랐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방인 뉴요커들이 뉴욕에 살면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뉴요커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에서 뉴요커의 의미와 본질을 밝힌 현상학적 연구이

다. 본질은 인식 주체의 사유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내재적 속성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을 가진다는 점(Lee, 2015)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인 현상에 대한 기술로부터 공통적인 의미와 본질을 찾는 작업이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시작이다.

1.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현상을 충분히 포함하는 사례를 표집하기 위해 적절성과 충분함이란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Shin et al., 2004). 적절성은 뉴요커로서의 삶에 대해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적절성을 갖춘 연구참여자는 본 연구목적을 충분히 이해하는 지인으로부터 뉴욕에 거주하고, 뉴욕에서 일하는 30대 전후 싱글 한국인 여자 패션디자이너와 남자 광고디자이너 한 명씩을 소개받았다. 심층면담을 마친 참여자들이 연구목적에 적절하고, 자신의 뉴욕생활을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고, 연구를 위해 바쁜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친구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편의표집하였다. 충분함은 뉴욕의 삶을 설명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는 것이다. 최초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뉴욕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고, 남자들이 많은 금융 계통 근무자들은 너무 바빠서 심층면담 자원자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예정된 기간 동안에 자료수집을 마칠 수 있도록 본 연구참여자를 여자로 한정지었고,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한 최종 연구의 참여자는 11명이었다. 연구참여자 관련 정보는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연구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된 가명, 만 나이, 직업, 뉴욕거주 기간을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모두 여자이다 보니 직종이 패션디자이너와 광고디자이너로 직업적 다양성이 좁아지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도 경험한 후 더 나은 패션교육 혹은 더 좋은 패션업체에서의 일을 찾아 뉴욕을 선택했고, 뉴욕교육기관의 단기 과정을 거쳐서 패션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참여자로 차우영, 최윤비, 강수정, 박다솜, 김민숙이 포함되었다. 다음은 국내에서 대학 입학과 편입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학을 왔고, 뉴욕교육기관의 정규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후 패션, 광고, 그래픽업체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참여자로 이미영, 안정아, 김소현, 심영은, 양찬미, 임지혜가 포함되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s

Alias	Age	Occupation	Residence
Lee, Miyoung	29	Fashion designer	8
Shim, Youngeun	31	Visual Designer	7
Cha, Wooyoung	34	Fashion designer	8
Kim, Sohyun	28	Advertising designer	7
Kim, Minsook	32	Fashion designer	7
An, JoungA	30	Fashion designer	7
Yang, Chanmi	33	Fashion designer	9
Rim, Jihye	30	Fashion designer	7
Choi, Yoonbee	32	Fashion designer	8
Kang, SuJeong	35	Fashion designer	7
Park, Dasom	34	Fashion designer	6

연구참여자들의 비자상태는 세 가지였다.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유학생 현장실습 기간(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1년을 지내며 뉴욕기업체가 후원하는 노동비자(H1)를 갖고 일하는 참여자 7명과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고 예술인비자(O1)를 갖고 일하는 참여자가 2명, 그리고 유학 온 자녀를 따라 결국 부모님이 이민을 오게 돼서 영주권을 갖고 있는 참여자 2명이 포함되었다. 노동비자는 3년에 한 번 비자를 갱신해야하고 최대 6년까지 일할 수 있다. 예술인비자는 3년간 유효하고 회수 제한은 없지만 계속 미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일하기 시작한 지 6년이 되기 전에 영주권을 준비하고자 했다.

2. 자료수집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수집은 심층면담과 참여관찰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가장 바쁜 뉴요커인데다가 외국이라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고, 자신의 사적 정보에 민감한 외국인 신분이기에 공식적으로 만나기까지 무척 까다로웠다. 연구자의 신분이 드러나도록 소속기관 이메일을 이용해서 먼저 가벼운 소개와 연구참여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 등을 대략적으로 소개한 후 공식적인 면담날짜와 시간을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만날 장소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긴 과정을 거치면서 심층면담으로 진입하기에 유리한 정도의 친밀감과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심층면담의 장소는 참여관찰 효과를 기대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하려고 시도했으나 혼자 살고 있는

한 명의 연구참여자만 가능했다.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엄청나게 비싼 뉴욕의 집값 부담을 나누기 위해 모두 룸메이트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이런 공동거주계약상 낯선 사람을 그들의 공간에 들이는 것이 아주 곤란한 상황임을 알게 됐다. 결국 참여관찰을 통한 자료는 최소한만 수집되었고, 대부분 심층면담 자료가 수집되었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가 가장 편한 날짜와 시간에, 가장 편한 레스토랑을 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서 실행했다. 자료수집은 뉴욕 맨해튼에서 2013년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2014년 2월 18일까지 완성되었다.

연구참여의 응답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최대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 비구조적인 질문을 사용하였다. “뉴욕생활은 어떠세요?”, “뉴욕에서 무엇을 경험하셨나요?”,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신을 뉴요커라고 생각하시나요?” 등 포괄적으로 시작한 후, 개방적인 대화과정에서 파생되는 후속질문이나 상술질문, 직접질문, 엄밀한 조사질문, 간접질문 등으로 내용을 구체화시켰다(Shin et al., 2004). 면담 중 특별히 강조하거나 특징적인 내용은 면담 후 관찰일지에 기록하였고, 녹음한 심층면담 자료는 연구참여자의 언어가 그대로 전달되도록 전사되었다.

3. 자료분석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과 분석은 순환과정을 거치면서 보완되고 변환되므로 분리하기 어려웠다(Oh, 2014). 첫 번째 연구참여자를 심층면담해서 얻은 녹취자료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되는 의미단위 기술을 얻었다. 다음은 심층면담을 하면서 앞선 참여자로부터 얻은 의미단위 기술과 비교, 보완하는 질문이 더해지면서 공통적인 의미단위 기술과 개별적인 의미단위 기술을 분리할 수 있었다. 심층면담이 계속되면서 오래전 직장동료였으나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동료와 중요한 의미단위들을 논의했고, 공통되는 의미범위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지오르지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총체적인 의미파악, 중심의미 발견, 학문적 용어 전환, 변형된 의미를 구조로 통합(Shin et al., 2004)하는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론적 선입견의 영향으로 생기는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변경법과 현상학적 판단중지 절차를 준수했다. 1단계는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전사된 면담자료를 반복해서 읽었다. 2단계에서는 맥락을 분절해서 연구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분류했고,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맥락을 중심으로 중복되는 의미를 발견했다. 연구참여자 11명의 주요 경험이 드러나도록 의미있는 단락, 문장, 줄 단위로 분절하여 연구주제와 관계된 291개의 의미단위가 구분되었다. 291개의 의미단위로부터 현상학적 환원법을 사용해서 맥락과 의미에 따라 공통되는 70개의 중심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3단계는 연구참여자의 일상적 언어로 구성된 경험들의 중심의미 70개를 판단중지와 자유변경법으로 더욱 압축하고 요약해서 학문적인 용어로 전환된 14개의 드러난 주제가 제시되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드러난 주제 14개 간의 상관관계를 포함하도록 경험구조로 통합하여 전체적인 경향성과 공통적인 경험의 본질 즉 본질적 주제 4개를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언어를 압축하고 통합해서 제시된 드러난 주제와 본질적 주제는 생동감 있는 참여자의 언어를 살리도록 구성했으며, 면담과 관찰을 통한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결과이다.

연구의 엄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Creswell(2013/2015)이 제시했던 기준을 충족하였다. 가장 먼저 면담자료와 관찰자료 이외에 학술논문과 단행본, 드라마, 사전 등 자료출처를 다원화하였다. 다음은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분석과정을 꼼꼼하고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일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 연구참여자와의 충분한 라포 형성을 통해 불성실한 응답이나 반응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고, 잠정적 연구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자신의 경험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상학적 언어에 민감성이 높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의미관계와 경험구조를 확인하였다. 이외에도 심층면담 시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서 면담을 종결하는 방법으로 적용을 높이려고 노력했으며, 비구조적 면담으로 연구참여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중립성을 유지하려는(Jang, 2011) 노력을 했다. 또한 습관적이고 자연적인 태도의 일반정립이 배제되도록 괄호치기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하는 것을 막아주어 타당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하였다(Lee, 2015).

IV. 연구결과

지오르지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의미단위 분류, 중심의미 발견, 학문적 용어로 전환된 드러난 주제, 구조로 통합된 본질적 주제 도출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참여자들의 주요 경험이 드러나도록 분절한 의미단위

는 그 분량도 많고, 개개인의 어휘차이, 개인만의 특수성 등 학문적인 가치로서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비해 중심의미는 참여자들의 공통되는 맥락과 의미를 중심으로 했고, 가능한 한 이들의 일상적 언어를 살려서 표현되었다. 드러난 주제는 연구참여자의 언어를 반영해서 보다 압축된 학문적 용어로 전환된 개념이고, 본질적 주제는 더욱 요약되고 압축되고 추상화된 경험구조로 통합된 개념이다.

이런 연구과정을 거쳐서 발견한 뉴요커의 본질적인 조건은 뉴욕에 살고 있고, 뉴욕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점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참여자가 뉴요커로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에서 먼저 '뉴욕에서 일하기'와 '뉴욕에서 살기'로 구성하여 중심의미와 드러난 주제와의 관계로 기술되었다. 다음으로 드러난 주제 간의 상관관계가 드러나는 경험구조로 통합된 본질적 주제가 기술되었다.

1. 뉴욕에서 일하기

'뉴욕에서 일하기'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 자료를 맥락 분절해서 얻은 의미단위는 모두 130개였고, 맥락적 의미를 공유하도록 분류하고 압축해서 얻은 중심의미는 31개였다. 예를 들어 중심의미 '꿈꾸던 기회가 넘치는'은 연구참여자의 일상적 언어를 살려서 편집한 의미단위들 '다들 있고 싶어 하는 기회가 많은 곳', '패션은 뉴욕이 잡고 있으니까 기회 많고', '꿈꿨던 광고의 세계, 타임스퀘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압축해서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31개의 중심의미가 구성되었다. 다음은 판단중지와 자유변경법으로 더욱 압축하고 요약해서 학문적인 용어로 전환한 드러난 주제 6개를 아래 <Table 2>에 제시했다.

첫 번째 드러난 주제는 '무한한 가능성의 최고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다. 뉴욕은 '꿈꾸던 기회가 넘치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서 역동적인' 곳이었다. 자신이 하던 만큼 똑같이 일했어도 '세계적인 무대에서 일하는' 느낌이고, 직접 만들어서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컬렉션을 보면서 '패션의 중심에서 웨이브를 만드는' 것을 실감한다고 하였다. '남부럽지 않은 미국회사에서 발 딛은' 연구참여자들은 전공 분야에서는 최고의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고, 남들이 다 오고 싶어하는 맨해튼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일하는 게 뭔가 더 크게 일하는 느낌? 엄청난 웨이브를 만드는 느낌이라고 하나? 미국 전체가 입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느낌이 다른 거 같아요." (차우영)

두 번째 드러난 주제는 '개인의 삶이 존중받고 업무여건이 좋은' 점이다. 뉴욕의 직장동료들은 '대등한 개체로 존중하는 관계'였다. 또한 잘한 점을 중심으로 말해주고, 믿어주고, 가족중심이라는 점에서 '개개인을 존중하는 직장'이라고 생각했고, '칼퇴근, 연봉, 업무체계가 좋은' 회사에서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공도 살리고 지지받으며 일하는 즐거움'으로 재미있는데, '일에 여유가 생겨서 안정되는 느낌'이 더해져서 일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

"여기는 디자이너 대우가 좋아요. 퇴근 이런 것도 야근수당 딱딱 나오고, 초봉이 4만부터 시작하거든요. 우선 대우가 다른 거잖아요. 항상 디자이너 충원이 많고, 저희 회사가 지금 셧다운돼서 한 부서가 싸악 없어지더라도 사이언스 쪽이 없어지지 디자이너가 1순위가 되지는 않거든요." (김소현)

세 번째 드러난 주제는 '충만한 성취동기로 경력 쌓기'이다. 뉴욕은 일도 많고 기회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감과 안목이 경력에 도움'되고, 후원받고 진행되는 패션쇼나 전시회, 패션 분야 전문인 모임 등 '경력에 유리한 일과 행사'가 많다. 연구참여자들은 '성공할 수 있는 뉴욕', '성취의 에너지가 충만한 뉴욕'에서 '도전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치열하게 목표를 이루고 있었다.

"디자이너들 일이 연봉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도 여기는 인스피레이션이 많잖아요. 뮤지엄도 음악도 한국에서는 평생 한 번 공연 올까말까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는 바로 옆에서 공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프리 콘서트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엄청 크고 또 디자이너들에게는 자기 라이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박다솜)

네 번째 드러난 주제는 '비자에 묶여서 억울함'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일할 의욕은 넘치지만 비자 후원을 받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나이에 한국 가서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입장이 모여서 '아직은 떠나기 억울한' 상황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어제 미팅하고 오늘 잘린다거나 매일 한 명씩 없어지고, 3개월 만에 잘리는 등 '잦은 해고로 신분이 불안함'이 공통된 애로사항이었다. 이런 절박한 신분의 문제는 내가 원하는 회

Table 2. Essentially meaning of work in New York

Common meaning	Exposed themes
- Full of dreams and opportunities - Dynamic through open possibilities - Work on a global stage - Create an impression in fashion center - Work for a famous US company that is envied by everyone	Pride in one of the top companies with infinite possibilities
- Equally respected relationship - Company that respects individuals - Time off work, good salary and efficient work system - Enjoyed support at work - Economically beneficial work and a feeling of stability	Respectable personal life and good work environment
- Cultural inspiration and insight to help my career - Advantageous career and activities - New York to succeed - Filled with energy and achievement - Challenged growth and development	Build a career full of achievement and motivation
- Feelings unfair to leave New York - Anxious status for frequent dismissal - Limited opportunity to work due to visa restrictions - Marriage, permanent resident, or leave	Unfair due to visa status
- Foreigners cannot get a job in a reputable company - Real job as a foreigner - Foreign workers equalize the cost of living - Loneliness in another country - Ethnic discrimination as a minority - Penalties due to the submissive nature of oriental women	Working as a discriminated foreigner
- Limitations due to short English ability - Give up work because of poor English - Promotion hindrances due to English and culture - Cultural communication and social skills necessary for promotion - Expressive culture to reveal myself - Familiar difficulties due to different Korean emotions	Distant English culture

사가 아니라도 나에게 비자를 후원해 주는 회사에 취업하고, 그 회사의 규정에 따라 프리랜서로 다른 일을 더 할 수도 없는 등 '비자에 묶여서 일할 기회가 제한'돼서 불편하게 갇힌 상태였다. 그나마도 노동비자(H1)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제한되므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면 영주권을 후원하는 회사를 찾거나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등의 '결혼이나 영주권 아니면 떠나기'의 고민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있는 게 저희는 비자로 묶여있다고 하거든요. 비자로 묶여서 못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모든 사람들이 미국으로 모이고, 그 사람들을 묶어 놓으니..." (이미영)

다섯 번째 드러난 주제는 '차별받는 외국인으로 일하기'이다. 미국교육기관에서 단기 혹은 장기 과정을 이수하면서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서 인턴을 했던 연구참여자들은 그런 회사에 취직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현

실은 외국인 노동비자 후원을 받아야하므로 '유명한 회사는 갈 수 없는 외국인' 처지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시스템이 회사를 옮기면서 연봉이 올라가는데, 외국인은 비자 후원 회사가 변경되므로 비자를 갱신하는 변호사 비용이 동시에 소모되는 현실 앞에 연봉 올릴 기회도 제한되고 있었다. 이렇듯이 뉴욕에서 집세 내고 생활하려면 '생활비용 맞춰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로서 '외국인의 일자리 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방인으로 '타국에서 혼자라 외로운' 감정과 알게 모르게 '소수민족이라 차별받는' 인종문제, 영어도 못하고, 부당함을 표현하기가 아직은 어색한 어린 20대의 '순종적인 동양여자가 받는 불이익'까지 모두 혼자서 스스로 감당하고 있었다.

"학교 다닐 때는 막연하게, 좋은 대학 갈 줄 알았는데 고3 되면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런 거처럼 대학교 다닐 때는 졸업하면 마크 제이콥스에서 일하겠지 했지만 정작 현실은 외국인은 뽑지도 않는 거..." (김민숙)

여섯 번째 드러난 주제는 '너무 먼 영어문화'이다. 모국어가 아니라 말이 자유롭지 않아서 당하는 무시, 속상함, 자격지심 등 '짧은 영어 때문에 위축되는' 심정과 '영어 때문에 좌절하는' 경험은 모든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겪는 아픔이고 한계였다. 경력이 쌓이고, 보조 디자이너에서 중간 디자이너로 '올라갈수록 영어와 문화가 애로사항'이었다. 승진을 하려면 직장동료들 뿐 아니라 업체 관계자들과의 미국식 '의사소통문화와 사교스킬이 필요한' 업무가 증가하지만 영어와 문화에 여전히 낯설었다. 특히 놀 때는 놀고, 일할 때는 자기의 성과를 어필하고, 다양한 화제로 끊임없이 대화를 주도하고, 연봉도 협상하는 등 '스스로 드러내야 하는 표현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또 미국역사와 문화를 몰라서 공감도 어렵고, 조용히 일하고 겸손함을 미덕으로 알던 '한국정서와 달라서 가까워지기 어려운' 점이 히말라야 산맥같다고 했다.

"회사를 옮기거나 올라가려면 결국은 인맥이거나 문화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들긴 하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맨날 어시스턴트로만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늘 들죠." (강수정)

2. 뉴욕에서 살기

'뉴욕에서 살기'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 자료를 맥락분절해서 얻은 의미단위는 모두 161개였고, 맥락적 의미를 공유하도록 분류하고 압축해서 얻은 중심의미는 39개였다. 다음으로 판단중지와 자유변경법으로 더욱 압축하고 요약해서 학문적인 용어로 전환한 드러난 주제는 8개였고, 아래 <Table 3>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드러난 주제는 '전형적인 뉴요커와 진짜 뉴요커'이다. 뉴욕에 사는 전형적인 뉴요커는 '섹스 앤 더 시티의 캐리처럼' 뉴욕을 배경으로 제작된 미국드라마의 주인공을 꿈꾸는 것이다. 드라마의 여주인공들은 '패션에 뒤지지 않는 화려한 싱글'로 '까만 옷을 입고 커피와 베이글을 들고 옐로우 캡을 타거나 빠르게 걷는 직장인'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뉴욕에서 6년 이상 살아온 이들이 말한 진짜 뉴요커는 자기들끼리만 공유하는 맛집이나 물건 파는 점포를 잘 알고, 문화예술 공연정보와 할인정보 등 알찬 문화정보에 빠삭해서 '자기만의 뉴욕정보에 밝은' 그리고 자기만의 문화를 '꾸밈없이 여유있게 즐기는' 사람들이다.

"패션의 중심이고, 여기 오면 대박 나는 디자이너가 될 거 같고, 유명한 사람도 많이 만나고, '섹스 앤 더 시티'에 나오는 그런 걸 꿈꾸잖아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뉴요커는 패션에 뒤지지 않고, 뭔가 잘 즐기고, 소셜 이벤트에 많이 참석하고, 혼자지만 화려하고, 근데 뉴요커라는 말은 타 지역 사람들이 쓰죠." (최윤비)

두 번째 드러난 주제는 '언론이 포장한 환상을 쫓는 불쌍한 뉴요커'이다. 뉴요커는 뉴욕이라는 '세계의 중심에 서있는' 사람들이다. 뉴요커에 대해 '막연히 꿈꾸는 환상'은 뉴욕의 실생활을 모른 채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으로 접하거나 아쉬운 여행지로 '멀리서 바라보고 동경하는' 도시에서 만들어진 이미지였다. 동경하고 꿈꾸는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화려한 패션과 명품으로 치장한 예쁘고 잘 생긴, 돈이 많아 보이는 백인으로 요약할 수 있고, 모두 '물질적으로 화려한' 속성이다. 그러나 실제로 뉴욕에는 미국인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여행객이고, 거지도 많고, 지하철은 더럽고, 패션업체 디자이너지만 멋지게 꾸미지도 않고 막 편하게 입고 다니고 심지어 유명한 브랜드들도 디자인을 베끼는 실정은 마찬가지라고 느꼈다. 이런 실망으로 자신들을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사는 불쌍한 뉴요커'라고 했다.

"뉴요커에 대한 환상 첫 번째는 뉴요커하면 다들 좀 돈 많아 보이잖아요. 솔직히 맨해튼에서 그렇게 좋은 콘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 같고, 그리고 옷이나 명품같은 거에 대한 환상

Table 3. Essentially meaning of living i New York

Common meaning	Exposed themes
- Like protagonist from Sex and the City - Fashionable gorgeous single - Workers wearing black clothes, walking quickly, holding coffee and bagels - Enjoy leisure without ornament - Information on New York's attractions	A typical New Yorker and a real New Yorker
- Standing at the center of the world - Dreaming vaguely to expect - Watching from afar and yearning - Materially splendid - Poor New Yorkers to survive	Poor New Yorkers chasing the illusion established by the media
- Free and lonely souls - Need to overcome the duality of emotions - Fun and glamorous but lonely day - Shabby reality in the splendid cultural center - Still gentile in a hard and exigent reality	Lonely living in another country while maintaining a positive outward attitude
- An unreliable insecure status - Living day to day because of an uncertain future - Insecure life due to an unstable status - Fearful of abandonment and continuous leaving - Relative loneliness compared to successful people - Overcoming loneliness in a solitary way	Insecure beings
- Worldwide exhibition performances that stimulate inspiration - The best culture built on past culture - A leisurely life enjoying culture - Many discounts for exhibitions or free concerts	Enjoying cultural benefits from rich countries
- A splendid city of wealth - Gorgeous fashion, shopping, and clubs - Outstanding and brilliant people - Many cultural exchange opportunities with foreign friends	Spectacular city with abundant resources
- A melting pot of races and diverse cultures - Freedom of activities due to the respect for differences - Consideration at the same level - Respect for the individual - Freedom in diversity	Freedom due to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diversity
- Freedom from my parents - Independent woman based on a brave self-resolve - Many single women due to a shortage of men - Many strong women living alone	Free and independent women beyond prejudice

도 있잖아요. 뉴욕사람들은 다 그럴 거 같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거지도 많고, 또 뉴욕이 워낙 화려하고 건물 외관이 반짝 반짝 너무 예쁜 도시니까 멀리서 볼 때는 당연히, 여기에 안 사는 사람일수록 동경이 생길 거 같아요. 뭔가 항상 일어나는 중심지이고, 뭔가 계속 이슈가 되는 곳이고..." (임지혜)

세 번째 드러난 주제는 '겉과 속이 다른 외로운 타향살이'이다. 뉴욕생활에서 자유를 만끽하다보면 정이 그리워지고, 일단 칭찬하지만 뒷말도 잘 하는 그들의 속을 알 수 없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양면성을 감당해야하는', '자유로운 듯 외로운 영혼들'이었다. 다양한 문화생활이 '재미있고 화려하지만 외로운 일상'을 경험했고, 드라마처럼 만족하기엔 비자, 취업, 경쟁 등 치열한 경험들로 인해 뉴욕생활을 '기대와 다르게 초라한 현실'로 지각했다. 또한 패션의 중심지에 있는 화려한 빌딩에서 살지만 집세를 절약하려고 집을 나누고 나누어서 살고, 화려한 싱글라이프로 보이지만 비자 앞에 무너지고 노예처럼 일하는 외국인으로서 '화려한 중심지에서 무너지는 이방인'이었다.

"남들이 보면 부모님이 잘 사나보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생활이죠.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사는 빌딩은 되게 좋아 보여도 들어가 보면 방은 하나인데 둘이서 사는 건 기본이고... 나누고, 나누고, 하잖아요." (심영은)

네 번째 드러난 주제는 '하루살이같이 불안한 존재들'이다. 내 나라가 아닌 뉴욕에 살다보니 '비자와 해고, 신분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가도 '내 자리가 어딘지 붕 떠 있는' 느낌 때문에 한번씩 외롭고 우울함을 경험했다. 인간관계도 대부분 유학생이나 여행객같은 단기 체류자들과 형성되므로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듯이 '떠나는 연속으로 혼자 남는 두려움'과 상실감을 경험했다. 여기에 나만 혼자인 것 같은 '잘나가는 남들과 비교된 상대적인 외로움'까지 혼자서 감당하다보니 음악, 영화, 책, 글쓰기, 인형 만들기, 수집, 그림, 쇼핑, 여행, 운동 등 '혼자만의 방법으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었다.

"가족도 옆에 없고 친구들도 없고, 나도 안정이 안 돼 있고 주위 사람들도 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붕 떠 있는 느낌이죠. 휴가 때 한국에 가도 내 자리가 아니고 여기와도 딱히 내 자리가 아닌 거 같고 그럴 때 좀 외롭고 우울하고 그렇죠. 내가 잘 살고 있나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결국 딱히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하늘의 뜻이면 가게 되는 거고..." (강수정)

다섯 번째 드러난 주제는 '부자나라의 화려한 문화혜택 누리기'이다. 뉴욕생활의 최고 혜택은 '영감을 자극하는 세계적인 전시공연'이고, 도시의 건물과 인테리어에서 옛것과 새것이 조화된 작품들은 '과거에 더해진 최고의 문화'였다.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문화'활동들과 돈 안 내는 거리공연이나 바로 옆에서 비싸지 않은 공연 등 '무료 공연전시 할인기회가 풍부한' 뉴욕은 모두가 문화를 누리도록 체계를 갖춘 문화예술의 도시였다.

"뉴욕이라는 콘텐츠가 대단하더라고요. 뉴욕이 세계적인 도시란 걸 모르다가 슬슬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봤더니 공연도 쉽게, 쉽게 볼 수 있고, 쇼핑도 항상 최상의 것들이 모여 있고, 그게 고가품이건 아니건 간에 어디를 가도 여기 브랜드들이 외국에 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항상 다 있는 거고... 그런 게 재미있는 거 같아요." (양찬미)

여섯 번째 드러난 주제는 '풍부한 자원으로 화려한'이다. 뉴욕은 한국의 부자들이 다 나와 있는 듯이 '부자가 많아서 화려한',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이 많아서 화려한' 곳이다. 패션의 도시답게 '화려한 패션, 쇼핑, 클럽'문화와 모르는 사람들도 대화할 수 있는 파티문화같이 '외국친구들과 문화교류기회가 많은' 뉴욕은 다양한 자원이 풍부해서 화려한 도시임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이 화려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첫 번째 쇼핑. 그리고 클럽이나 바, 아니면 레스토랑이나 작은 카페같은데도 많으니까요. 미술 좋아하는 애들은 메트로폴리탄, 구겐하임, 모마 그 외에도 많잖아요. 쇼핑 좋아하는 애는 백화점 정말 많잖아요. 뉴욕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안정아)

일곱 번째 드러난 주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유로움'이다. 뉴욕은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다양한 문화존중으로 자유로운' 방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혹시나 피해를 주는 거는 아닐까 조심하며 간섭하지 않는 행동,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의 말도 맞겠구나하고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인종과 문화까지도 '동등한 수준에서 배려하는' 사회적 예의로 경험했다. '개개인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

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워낙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으니 선택사항이 많아져서 경쟁심을 덜 느끼는 요인이 되므로 '다양함 속의 자유로움'은 뉴욕생활의 큰 특징이자 혜택이었다.

"제가 혼자서 제 생활을 100프로 활용을 하는 거니까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워낙에 다양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조금 튀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니까 다양함이 존중되는 거 같아요." (김민숙)

여덟 번째 드러난 주제는 '편견 너머 자유롭게 독립한 여자들'이다. 멀리 혼자 나와서 사니까 '부모님 눈치 안 봐서 자유로운' 것 뿐 아니라 결혼이나 나이에 대한 사회적 압박에서 자유로운 뉴욕 미혼여성들은 실제로 나이보다 어려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뉴욕은 작은 공간에 많은 것이 모여 있어서 여자가 혼자 살기 편한 도시이고, 젊은 시기 도전으로 강해진 '혼자 사는 강한 여자들'이 넘치는 곳이다. 또한 뉴욕 특유의 현상이라 할 수 있는 '남자가 없어서 싱글여자가 많은' 곳에서 가족 없이 혼자 개척하고 헤쳐 나가다보니 '혼자 살면서 용감하고 독립적인 여자'들로 성장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성향이 많이 비슷해요 여자들은 되게 강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수 있는 분들도 많고... 꿋꿋하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환경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딸리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자기만의 방법을 찾게 마련이거든요." (이미영)

3. 본질적 주제별 심층기술

뉴요커로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의 이야기는 '뉴욕에서 일하기'와 '뉴욕에서 살기'로 구성되어 드러난 주제가 앞에 제시되었다. 드러난 주제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경험구조를 보다 축약하고 추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본질적 주제 4개를 도출했고 <Table 4>에 제시했다.

첫 번째 본질적 주제는 '최고의 무대에서 자기실현 꿈꾸기'이다. 뉴욕업체들은 인종이나 학력 구분 없이 개인의 실질적인 능력으로 일할 기회를 열어주고, 세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큰물에서 흐름을 만드는 '가능성이 무한한 최고 기업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했다. 이 회사들은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업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기억되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인데다가 모두 내세울 만한 유명한 회사에서 대등한 동료관계,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계속 일하고 싶은 곳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렇게 가능성이 넘치는 곳에서 존중받으며 일한다는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충만한 성취동기로 경력 쌓기'에 힘을 다하고 있었다. 이들은 성공을 향한 성장과 발전을 꿈꾸며 외국에 혼자 와서 일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뉴욕에서의 근무경력이 나중에 어딜 가도 유리하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도전하며 여전히 성장과 발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Table 4. Essential themes description

Exposed themes	Essential themes
- Pride in one of the top companies with infinite possibilities - Respected personal life and a good work environment - Building a career full of achievement and motivation	Self-realization at the highest stage
- Enjoying cultural benefits from rich countries - Spectacular city with abundant resources - Freedom due to respect for diversity and consideration - Free and independent and free women beyond prejudice	Indulge in advanced culture of affluence and freedom
- Unfair due to visa status - Working as a discriminated foreigner - Distant English culture	Collapsing every day in depressed foreign workers
- Typical New Yorker and a real New Yorker - Poor New Yorkers chasing the illusion established by the media - Lonely living in another country while maintaining a positive outward appearance - Insecure beings	Becoming a rootless gentile New Yorker

두 번째 본질적 주제는 '풍요와 자유, 선진문화에 빠지기'이다. 뉴욕은 세계의 문화수도로서 문화예술이 일상화됐고, 무료거나 싼 비용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자나라에서 문화혜택 누리기' 기회가 풍부한 곳이다. 여기에 다원화된 고급예술과 상업적인 문화활동이 더해지면서 뉴욕은 더욱 화려한 도시가 되었다. 화려함의 일차적인 특성은 건물, 패션, 명품, 상업문화, 클럽 등 돈 많음과 외적인 것이 연계된 물적인 속성이 중심이다. 하지만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과의 문화교류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내적인 속성들 역시 '풍부한 자원으로 화려한' 뉴욕을 구성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뉴욕은 '다양성의 존중과 배려로 자유로운' 곳으로 지각되었다.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관습, 편견, 시선 등에서 자유로웠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한국사회의 편견과 가족의 눈치에서 멀어진 뉴욕에서 '편견 너머에서 자유롭게 독립한 여자들'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선진문화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세 번째 본질적 주제는 '매일, 슬픈 외국인 노동자로 무너지기'이다. 뉴욕에서 일하는 동기, 의의, 만족 등이 분명히 크지만 '비자에 묶여서 억울한', '차별받는 외국인으로 일하기', '너무 먼 영어문화'라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매일 매순간 넘어지고 있었다. 아직 더 경력을 쌓아서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은데, 살벌하고 각박한 직장현실과 외국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년이라는 시간적인 압박, 결국은 영주권을 얻든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국인의 현실 앞에서 매일 '비자에 묶여서 억울한' 슬픈 노동자임을 절감하고 있었다. 게다가 영어 때문에 위축되고 좌절한 경험과 동양인 여자이기에 '차별받는 외국인으로 일하기'로 무시당한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 특히 상품기획이나 광고기획이 하고 싶었지만 기획 분야에서 필요한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보다 실기능력이 필요한 디자인 분야에서 일한다. 영어의 한계를 잠시 돌리긴 했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다시 맞닥트린 한계는 '너무 먼 영어문화'이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고 계속 살려면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하고 결국은 관리직으로 이동하는 것인데 한국정서와 너무나 다른 표현문화나 의사소통문화는 노력할 뿐 아직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한계로 힘든 점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일하는 매순간 영어와 비자로 무너지고, 승진을 꿈꾸면서 영주권과 문화차이로 무너져야하는 슬픈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네 번째 본질적 주제는 '정처(定處)없는 이방인 뉴요커 되기'이다. 전형적인 뉴요커는 동경과 환상이 만든 물질적인 화려함을 모두 가진 돈 많고 멋지게 혼자 사는 사람이지만 진짜 뉴요커는 뉴욕 구석구석 정보에 밝고, 많이 알며, 뉴욕의 문화예술을 자유롭고 여유 있게 즐기는 사람으로 구별하였다. 이들은 모두 주류 뉴요커를 구별하는 서술일 뿐 이방인 뉴요커는 살아남으려는 치열한 경쟁으로 각박해진 현실이 실제라는 점에서 '언론이 포장한 환상을 쫓는 불쌍한 뉴요커'로 구성했다. 뉴욕에 대한 환상은 삶의 곳곳에서 양면성으로 극대화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뉴욕생활은 많은 자유와 존중, 독립이 주어지지만 외로운 영혼들로 혼자였고, 재미있고 화려한 삶이지만 냉정한 뉴요커들이 넘치는 외로운 일상이다. 또한 영화같이 멋진 뉴욕생활을 기대했으나 비자나 영어로 초라한 현실의 이방인 뉴요커로 '겉과 속이 다른 외로운 타향살이'를 경험한다. 이방인 뉴요커는 경쟁이 치열한 일터에서 미래가 불확실한 외국인으로, 떠나고 들어오고의 연속으로 불안한 인간관계 속에서, 잘나가는 사람들과 비교되면서 겪는 외로움을 혼자만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사는 '하루살이같이 불안한 존재들'이었다. 이처럼 이방인 뉴요커가 주류 뉴요커처럼 되기엔 하루살이같이 불안한 존재들이고, 겉과 속이 다른 외로운 타향살이로 언론이 포장한 환상을 쫓는 불쌍한 뉴요커라는 점에서 '정처 없는 이방인 뉴요커'가 본질구조라고 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패션과 문화의 중심 뉴욕에 대한 관심과 그 속에 사는 이방인 뉴요커들의 삶은 어떤지 궁금해서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방인 뉴요커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뉴욕생활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경험이 갖는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수사례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좋고, 현상의 본질을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분류하는 지오르지의 기술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연구결과 도출된 본질적 주제는 '최고의 무대에서 자기실현 꿈꾸기', '풍요와 자유, 선진문화에 빠지기', '매일, 슬픈 외국인 노동자로 무너지기', '정처없는 이방인 뉴요커 되기'이었다. '최고의 무대에서 자기실현 꿈꾸기'와 '풍요와 자유, 선진문화에 빠지기'는 좀 더 내적인 속성이거나 개인적인 차원으로 기대하고 누리는 경험으로 구성되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전공교육이든 전

공직장이든 최고를 찾아 뉴욕으로 왔고, 세계 최고의 뉴욕에서 일하며 자기성장과 발전을 실현하고 있었다. 최고의 무대에서 자기실현 꿈꾸기는 유학을 떠나 뉴욕에서 일하는 동기, 의의 나아가 만족이 결집된 구조이다. 뉴욕생활의 만족과 의의를 유도하고 고무하는 주요 현상은 선진문화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이었다. 앞서가는 부자나라는 화려한 외관에 다양한 문화같이 유형무형의 모든 자원이 풍성하게 넘치는 곳이다. 그래서 선택사항이 많고, 특별한 하나도 다양함에 묻힐 수 있어서 본래의 속성이 존중받고 그대로 자유로워서 여유로운 문화를 갖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외국인 여자로서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지만 그대로 존중받고 자유로운 선진문화의 혜택 속에서 뉴요커의 삶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 즉 연구참여자들이 뉴욕에서 일하고 살면서 개인적으로 꿈꾸고 희망하고 바라보며 누리는 속성은 주류 뉴요커와 같은 삶이다.

좀 더 외적인 속성이거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주로 경험한 것은 '매일, 슬픈 외국인 노동자로 무너지기'와 '정처 없는 이방인 뉴요커 되기'이었다. 외적 환경인 삶의 현장은 최고의 물가를 자랑하는 화려한 도시에서 독립해서 살아야 하고,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일하며 언어와 신분의 한계에 '날마다 부딪치는 슬픈 외국인 노동자'였다. 언어는 개인과 집단의 사유방식, 문화양식의 차이를 포함하기에 미국회사에서 승진하고 성공하려면 영어식 문화와 사고방식이라는 의사소통보다 한 단계 높아진 한계를 보았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려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안 중 하나가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이었고, 이들의 은어(隱語)로 '독수리를 타고 가다'이었다. 참여자들이 개인적으로 꿈꾸던 뉴요커로 살기엔 해고와 비자 때문에 불안정한 직장, 불안하고 외로운 인간관계, 미래도 불확실해서 일단 하루하루 사는 불안한 존재들이었다. 이들이 처한 사회적인 현실은 이중적, 양면적이어서 뉴요커로서의 매력적인 혜택, 기대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로서 감당해야하는 어려움과 한계가 뚜렷해서 외롭고 각박한 타향살이에서 정처없는 이방인 뉴요커의 삶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연구참여자가 개인적으로 꿈꾸고 누리는 삶은 주류 뉴요커였지만 사회적 현실과 실제는 외국인이었기에 연구참여자들을 이방인 뉴요커라고 규정지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디어가 만들어 낸 뉴욕과 뉴요커에 대한 막연한 사회적 환상의 실체를 바라봄으로써 선진문화와 환상적 소비의 실제적 혜택과 냉정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학문적,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참여자들 중 한 집단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도 경험한 후 최고의 직업환경에서 자기실현을 꿈꾸며 뉴욕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디자인 분야의 열악한 연봉수준, 퇴근시간 눈치보기, 야근문화, 회식문화, 업무시간 불분명, 업무내용과 업무적 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것 등이 한국에서 일하기 두려운 점으로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패션기업은 디자이너의 중요성과 업무내용 구분, 환경개선 같은 사회적 시스템 보완과 선진적인 기업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 중 다른 집단은 국내 대학 입학과 편입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도전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며 뉴욕을 선택하였다. 이들에게 뉴욕은 디자인 분야에서 자기발전과 성장, 성공의 가능성과 기회가 넘치는 곳이었지만 차별받는 외국인으로 비자에 묶이고, 의사소통 뒤의 영어문화에서 겪는 힘겨운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한계 밖에서 강하게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입시제도나 대학의 교육방법, 디자인 전공의 교육내용 등 내실화와 차별화로 역량 있는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패션디자인 분야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한국과 뉴욕의 교육비용, 내용, 효과 등 좀 더 다양한 비교,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였던 최고의, 다양성, 자유로움, 독립적인, 풍부하고 화려한,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등은 뉴요커의 감성에 소구하는 상품기획의 개념어로 유용할 것이며, 나아가 실용적인 가치로 내면화된 패션제품의 필요를 제안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평가를 위한 고유한 기준에 따라 연구의 엄밀성을 높이려는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연구자료를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현상의 본질을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현상학 연구방법에 충실했음에도 연구자의 편견이나 해석같은 관찰자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운 한계 또한 있다. 연구참여자를 10년 이내의 짧은 기간 뉴요커로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 한정한 점과 제한된 자료수집 기간에 맞추기 위해 여자 패션/광고디자이너로 한정지은 점 역시 아쉬운 한계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수정 보완한 후속연구나 한국 패션디자이너들의 현실과 비교된 후속연구 등의 필요를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Atik, C. (2010, October 25). You're not a rreal New Yorker until.... *Guest of a Guest.* Retrieved September 16, 2015, from http://guestofaguest.com/new-york/nyc/youre-not-a-real-new-yorker-until

Berusch, M. (2015, January 6). Spotting a true New Yorker. *HUFFPOST NEW YORK*. Retrieved September 15, 2015, from http://www.huffingtonpost.com/martin-berusch/spotting-a-true-new-yorker_b_6379446.html

Creswell, J. W. (201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choosing among five approches (3rd ed.) (H. S. Jo, S. U. Jeong, J. S. Kim, & J. S. Kwon, Tran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3)

Doopedia. (n.d.a). New York. *Doopedia*. Retrieved August 14, 2015, from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08320

Doopedia. (n.d.b). Phenomenology. *Doopedia.* Retrieved August 14, 2015, from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756136

Essence. (2009, May 20). *Naver.* Retrieved August 1, 2015,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87917&cid=41978&categoryId=41985

Freie Variation. (2011, December 24). *Naver*. Retrieved August 5, 2015,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17828&cid=41908&categoryId=41972

Gopnik, A. (2009). *Through the children's gate: A home in New York* (J. H. Kang, Trans.). Seoul: Zelgerunsangsang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Han, M. C. (2015, February 24). [한민정의 뉴욕의 창] 뉴요커는 무례하다? 뉴요커 이미지의 실상 [[Window in New York by Min Chung Han] New Yorkers are rude? A fact of the new yorker image]. *Economic Review*. Retrieved August 10, 2015, from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368

Jang, S. J. (2011). *Phenomenological study regarding the experiences of life among nursing home resi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asnitz, P., Mollenkopf, J. H., & Waters, M. C. (2004). *Becoming new yorkers: Ethnographies of new second generation*.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Kim, R. (2007). *Mad for New York*. Seoul: Livingchosun.

Lee, K. M. (2015). *지오르기 현상학적 연구방법* [Giorgi's phenomenological approach]. Paper presented at the Insaranglab Conference, Seoul.

Lee, N. I.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Seoul: Hangilsa Co. Ltd.

Lee, H. S. (2012). *New yorker & People*. Paju: Hanwool academy.

Miller, H. (2014, April 4). Are you a real New Yorker? Test your knowledge of NYC's local celebrities. *HUFFPOST CELEBRITY.* Retrieved September 16, 2015, from http://www.huffingtonpost.com/2014/04/04/real-new-yorker_n_5092930.html

Moon, J. E. (2015). *Phenomenological study on experience of walking tour - Giorgi's phenomenological approach*.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Oh, H. J. (2014). A qualitative study on middle-aged homemakers' daily clothing purchase behavior: Clothing consumption values and clothing purchase type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3), 243–253.

Park, S. M. (2004). *뉴요커* [New yorker]. Seoul: Maumsanchaec.

Phänomenologische Reduktion [Phenomenological Reductio]. (2006, January 30). *Naver.* Retrieved August 5, 2015,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31145&cid=41799&categoryId=41800

Phenomenology. (1996, March 1). *Naver.* Retrieved August 10, 2015,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83679&cid=55558&categoryId=55558

Shin, H. K. (2009). *A study on design development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TV drama and women's wear bran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Shin, K. R., Jo, M. O., & Yang, J. H.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Qualitative research method].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The free dictionary. (2015), New Yorker. *THEFREEDICTIONARY.* Retrieved September 17, 2015, from http://www.thefreedictionary.com/new+yorker

Wikipedia. (n.d.). 섹스 앤 더 시티 [Sex and the City]. *Wikipedia*. Retrieved August 1, 2015, from https://ko.wikipedia.org/wiki/%EC%84%B9%EC%8A%A4_%EC%95%A4_%EB%8D%94_%EC%8B%9C%ED%8B%B0

Yi, J. D. (2001). New York city case study on cultural consumption system. *Cross-Cultural Studies, 7*(2), 143–180.

Yuppies. (n.d.). *Naver.* Retrieved August 1, 2015,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467&cid=43667&categoryId=43667